초등학생들의 도움요청 행동에 대한 도움제공자의 선호 및 수업환경 지각의 역할

Academic Help-Seeking Behavior : Helper Preference and the Classroom Environment

조 준 수*
Cho, Jun Soo

ABSTRACT

We sampled 167 2nd, 4th, and 6th grade students to assess who, why, and in what situations they asked for help when they had problems in math class. Results indicated that students generally perferred(??) classmates to the teacher as helpers but they saw the teacher as more likely to facilitate learning. Second graders perceived a closer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ir teacher than sixth graders. At the upper grades,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report asking for assistance if they thought that other students also needed assistance.

I. 서 론

최근에 학습전략 중 학습자의 학습기능상의 특징이나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고 모니터링하는 자기조절 학습(self-regulated learning) 전략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기조절 학습의 개념은 학생들의 학습과 학업성취 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재인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자기조절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향되어지는 과정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인지, 행동, 정서를 지속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의미한다(Pintrich & De Groot, 1990). 자기조절된 학습자들은 메타 - 인지적으로, 동기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한다(Zimmerman, 1994). 교실에서 자기조절된 학습자의 한가지 특성은 학습과정에서 모호함과 곤란함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능력이다(Newman, 1991, 1994; Zimmerman & Martinez-Pons, 1988). 학생들은 부득이하게 학업 과제를 계속하기 위한 도움이나 충고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메타인지), 도움을 요청할 것을 결정해야 하고(동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이끌어내

* 광양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기 위한 전략을 실행해야(행동) 한다(Nelson Le-Gall, 1985; Newman, 1994).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학업에 성공하기 위해 전략을 찾아서 사용하는 성취행동으로 개념화되어진다. 이런 맥락에서, 도움요청은 과제관여를 지속하고 실패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의지적인 전략(volitional strategy)이라 할 수 있고(Ames, 1983; Nelson Le-Gall, Gumerman & Scott-Jones, 1983),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 의해 고용되어지는 사전 행동적인 문제해결 전략이라 할 수 있다(Newman, 1990).

학생들이 학업내용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은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여러 가지 다른 주관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어떤 학생에게는 학업내용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한 것일 수 있으며, 또 어떤 학생에게는 교사와의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때로는 친구들로부터의 소외를 보상받고 싶어하는 것이 도움요청이 가진 잠재적인 의미일지도 모른다. 한편, 학업내용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이런 주관적인 의미의 충족만이 아니라 장래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학생들은 당장의 학업 곤란을 경감하고,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기술과 전략들을 습득할 수 있다(Newman, 1991).

실제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그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은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인지적, 사회적 기술들을 지녀야만 한다. 현재 학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도움요청의 결정인자들이 잘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업실패를 막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표면상 명백한 전략은 공부를 잘하는 급우, 부모, 혹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너무 일찍 포기하거나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보다 유익할 수도 있고, 혼자서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을 좀 더 독립적인 학습자들이 되게 하는 기술들과 전략들을 획득할 수 있다(Newman, 1991).

그러나 학업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업실패의 가능성을 알고,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학업수행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좀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성적이 낮은 학생들 대부분이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은 대개 성적이 높았으며, 그나마도 그 수가 별로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Good, Slavings, Harel, & Emerson, 1987; Karabenick & Knapp, 1988). 더구나 교육적 풍토의 차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는 이보다 더할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유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적다는 것은 검토해 볼만한 교육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도움요청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 동기, 태도 및 가치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학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하든 요청하지 않든 간에 중요한 예언변인들임을 밝혀왔다(Newman, 1990). 이러한 요인들은 학생들의 신념체계로서 그리고 자신의 변화에 대한 추론의 양식으로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Newman(1990)의 연

구결과는 학업에 대해 의욕을 보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초등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도움을 더 많이 요청하고, 교사들에게 의존하는 학생들은 독자적인 숙달을 지향하는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신을 능력있는 존재로 지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신을 멍청한 존재로 지각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지 않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들이 도움요청의 중요한 결정변인이라 할지라도, 수업환경과 교사들과 급우들을 포함한 사회적 상호작용 변인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이런 변인들은 교실맥락이 학년에 따라 변화를 겪는 것처럼 학년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Eccles, Midgley, Adler, 1984).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은 점차로 효과적인 도움제공자와 효과적이지 못한 도움제공자를 구별하게 된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은 도움제공자를 선택할 때 개인적 요인에 관심이 있다. 즉 마음에 들고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도움제공자를 선택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아카데믹한 것들에 더 관심이 있다. 즉 능력이 있다거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움제공자를 선택한다(Barnett, Darcie, Holland, Kobasigawa, 1982; Nelson-Le Gall & Gumerman, 1984).

초등학교 학생들은 교사들이 급우들에 비해 학습을 훨씬 더 촉진시킬 것이라고 믿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멍청하다고 생각할 것 같지 않다고 믿고 있다(Newman & Goldin, 1990). Newman과 Goldin의 연구에서는 2, 4, 6학년 학생들의 보고 사이에는 일관된 상호작용 패턴이 있었다. 학생들은 급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급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좋아했다. 이것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도움제공자가 교사이든 급우이든 간에 학생을 멍청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것과 특정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좋아하는 것 사이의 상관관계는 일관되게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목표지향, 통제정도(degree of control), 경쟁수준, 보상체계, 기대패턴, 학생에 대한 지지정도를 설정함으로써 수업분위기를 만든다. 이러한 요소들은 학생들의 성취관련 태도, 신념, 과제관여,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Fraser, 1986; Skinner, Wellborn, & Connell, 1990). 또한 타인과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수업환경은 경쟁을 조장할 것이고 자기보다 더 나은 다른 학생의 수행과 비교하여 자신을 부정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증가시킨다. 개인간 경쟁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은 자아개념, 성취관련 태도, 관제관여에 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다(Fraser, 1986; Slavin, 1983). 그러나 대부분의 교실에서 타인과의 비교가 도움요청을 억제한다 할지라도(Dillon, 1988),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급우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도움요청을 조장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논의에 근거할 때 학생들의 도움요청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개인적 특성 이외에 교실특성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도움요청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학업 이외의 분야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며 학업 내용을 다루어 수행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움요청에 관련된 이해를 재검증해서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학문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초보적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도움요청 행동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들을 강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질문을 하기 위한 학생들의 행동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를 안내하기 위해서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에서 제기된 연구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잠재적 도움제공자로서 교사들과 급우들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을 조사함으로써 도움요청에 대한 교실변인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을 위해 규명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학생들은 도움제공자로서 누구를 선호하는가?

둘째,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고무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과 교사에 대한 친밀감 지각이 학년, 성별,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도움요청 의도는 타인 수행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넷째, 예측된 변인들 중 도움요청 가능성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순천시 소재 초등학교 2개교에서 2학년 87명(남 35, 여 43), 4학년 88명(남 40, 여 48), 6학년 85명(남 45, 여 40)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들을 다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산수(수학) 성적을 토대로 중간집단을 제외, 최종적인 통계처리는 2학년 57명(남 30, 여 27), 4학년 53명(남 24, 여 29), 6학년 57명(남 27, 여 30)을 대상으로 했다. 성적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선행연구(Ames & Lau, 1982)에서 학업내용에 대한 도움요청으로부터 자신들을 잠재적으로 이로운 존재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수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대표집단으로 추론했기 때문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된 측정도구는 Newman(1990)에 의해 사용된 MLCQ (Mathematics learning in the Classroom Questionnaire)였다. MLCQ는 (1) 수업환경의 지각, (2) 도움요청 의도, (3) 도움요청에 대한 태도와 신념, (4) 수학성취에 대한 태도, 신념, 목표를 묻는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첫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있는 문항을 선택해서 사용하였다. 검사지는 영문판 검사지를 본 연구자가 우리말로 번역한 후, 초등학교 교사 2명과 국어 전공 교수에게 표현상 문제에 관한 조언을 받아 수정한 후 실시하였다.

수업환경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문항은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사들이 고무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과 개인적 친밀감 지각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는 산수공부를 할 때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 '선생님은 우리들이 산수공부를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 선생님은 나를 좋아한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해서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 알파계수는 .71이었다.

도움요청 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문제를 풀었지만 답을 확신하지 못할 때', '문제를 풀기 위

해 알아야 하는 어떤 것(산수 공식과 같은 것)이 기억나지 않을 때',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학생들 또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와 같은 문항을 포함해서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 알파계수는 .73이었다.

도움요청에 대한 태도와 신념을 측정하는 문항은 상이한 도움제공자(교사와 급우)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선생님(급우)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좋아한다', '선생님(급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산수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급우)에게 도움을 도청할 때, 선생님(급우)이 나를 멍청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선생님(급우)께 도움을 요청한다'와 같이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 알파계수는 .69였다.

문항들은 학생들이 학습곤란을 겪게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을 요청할 것인지, 혹은 다양한 진술들이 어느 정도나 사실인지를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척도에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조사는 초등학교에서 검사지를 배포하고 답안 작성요령을 설명한 뒤, 본 연구자가 각 항목을 큰 목소리로 하나씩 읽어 내려가면서, 그에 따라 한 문제씩 반응하도록 했다. 이러한 절차는 독해능력의 개인차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취해졌다. 검사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은 허용되었으며, 진지한 응답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념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용 SPSS 통계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 ANOVA, Scheffe 사후검증, t검증의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도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도움제공자의 선호

학생들이 교사와 급우에게 실제로 학습곤란을 겪을 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보고할 가능성,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신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멍청한 존재로 인식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학년별로 교사와 급우의 선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본 결과와 이들 변인간 상관관계 결과는 <표 1>, <표 2>와 같다.

도움제공자의 선호를 비교한 결과 학생들은 교사(M = 2.46)보다 급우(M = 3.11)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65) = -4.955$, $P < .001$). 학년별로는 2학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4, 6학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p < .001$). 급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학년별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M = 2.77)보다 6학년(M = 3.42)에서 더 많이 보고되었다($F(2, 164) = 4.051$, $p < .01$).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4, 6학년과 2학년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즉 2학년이 4, 6학년보다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더 좋아하

<표 1> 학년에 따른 도움제공자의 선호

변 인	학년	급 우		교 사		t
		M	SD	M	SD	
1. 도움요청을 좋아함	2	2.77	1.39	2.86	1.19	.337
	4	3.13	1.30	2.32	.92	-4.096 ***
	6	3.42	.92	2.19	.97	-7.080 ***
	전체	3.11	1.24	2.46	1.07	-4.955 ***
F		4.051 **		6.640 **		
Scheffe 사후검증		6 > 2		2 > 4, 6		
2.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	2	2.77	1.40	4.40	.96	6.963 ***
	4	3.02	1.08	3.96	1.04	6.457 ***
	6	3.35	1.04	3.74	.95	2.827 **
	전체	3.05	1.21	4.04	1.02	8.948 ***
F		3.400 *		6.763 **		
Scheffe 사후검증		6 > 2		2 > 4, 6		
3. 도움요청 가능성	2	2.70	1.18	3.54	1.20	3.675 **
	4	3.38	1.18	3.21	1.23	-.665
	6	3.75	1.01	2.91	1.15	-3.916 ***
	전체	3.28	1.20	3.22	1.21	-.374
F		12.832 ***		3.999 *		
Scheffe 사후검증		6 > 2, 4		2 > 6		
4. 멍청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믿음	2	2.56	1.34	2.25	1.29	-1.799
	4	2.51	1.10	2.32	1.14	-1.299
	6	2.49	1.15	2.63	1.13	.942
	전체	2.52	1.20	2.40	1.19	-1.305
F		.052		1.683		

*** p < .001 ** p < .01 * p < . 05

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은 급우(M = 3.05)보다 교사(M = 4.04)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65) = 8.948, p < .001). 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은 6학년(M = 3.74)보다 2학년(M = 4.40)에서 좀 더 강했다(F(2, 164) = 6.763, p < .01). 급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에 있어서는 6학년과 2학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급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은 2학년보다 6학년에서 더 많이 보고되었다.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곤란을 겪을 때 누구에게

<표 2> 학년에 따른 변인간 상관관계

변인	학년	변인 1	변인 2	변인 3	변인 4
1	2	-	.176	.269 *	-.188
	4	-	.275 *	.262 *	-.082
	6	-	.556 **	.652 **	-.113
2	2	.303 *	-	.178	-.111
	4	.271 *	-	.262 *	-.120
	6	.251	-	.514 **	-.009
3	2	.241	.250	-	-.146
	4	.430 **	.401 **	-	-.323 *
	6	.440 **	.356 **	-	-.313 *
4	2	-.122	.136	-.073	-
	4	-.101	-.137	.174	-
	6	.071	-.205	-.141	-

** P< .01 * P< . 05

대각선을 기준으로 위는 교사 선호, 아래는 급우선호의 상관수치임
1 = 도움요청을 좋아함
2 =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
3 = 도움요청 가능성
4 = 멍청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믿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도움제공자의 선호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t(165) = -.374, p > .05), 2학년의 경우에는 교사(M = 3.54)에게 6학년의 경우에는 급우(M = 3.75)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학년이 올라가면서 급우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면서 교사에 대한 선호가 낮아졌다. 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보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학년과 6학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있었다(p < .05). 즉 2학년이 6학년보다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더 많이 보고했다. 급우에게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을 보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6학년이 2, 4학년보다 의의있게 높은 도움요청 가능성을 보고했다.

끝으로 교사나 급우가 도움을 요청하는 자신들을 멍청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염려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를 보이지 않았다(t(165) = -1.305, p > .001).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급우로부터의 부정적 지각에 대한 염려의 척도 점수는 낮아진 반면(M = 2.56 > 2.51 > 2.49), 교사로부터의 부정적 지각에 대한 척도의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M = 2.25 < 2.32 < 2.63). 각 변인들에서 도움제공자의 선호와 학년, 성, 성적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어 보고하지 않았다.

Newman과 Goldin(1990)의 연구에서 수업시간에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성적이 높은 학

생보다 낮은 학생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멍청해 보일 것이라고 염려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성과 성적의 효과를 검증해 보았지만 성의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표 3>에서와 같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도움을 요청할 때, 교사나 학생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더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표 3> 성과 성적에 따른 도움요청에 대한 염려

변인		M	SD	t
성	남	2.46	1.19	.611
	여	2.35	1.20	
성적	상	2.17	1.15	-2.437 *
	하	2.62	1.20	

* $p < .05$

각 학년 수준에서 교사와 급우로 분리한 상관관계 결과는 도움요청을 좋아함,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 도움요청 가능성 변인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들은 2학년에서의 몇 개의 변인들간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학년 수준에 따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이들 세 개의 변인들과 도움제공자로서 선택한 사람이 멍청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믿음 사이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도움요청과 수업환경 지각

수업시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교사들이 고무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과 교사와의 친밀감 지각이 학년, 성, 성적에 의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4>, <표 5>, <표 6>, <표 7>과 같다.

<표 4> 수업환경 지각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M	SD
학년	2	4.10	.65
	4	3.89	.55
	6	3.68	.51
성별	남	3.83	.58
	여	3.94	.61
성적	상	3.95	.59
	하	3.83	.59
전체		3.89	.59

<표 5> 학년, 성, 성적에 따른 수업환경 지각의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학년	4.949	2	2.474	7.492 ***
성	.4074	1	.407	1.232
성적	.380	1	.380	1.152
학년 X 성	.280	2	.140	.425
학년 X 성적	1.466	2	.733	2.219
성 X 성적	.194	1	.194	.588
학년 X 성 X 성적	.6305	2	.315	.953
Residual	51.193	155	.330	
전체	59.541	166	.359	

*** $p < .001$

<표 6> 교사에 대한 친밀감 지각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M	SD
학년	2	4.45	.86
	4	4.18	.83
	6	3.03	.96
성별	남	3.76	.96
	여	3.98	1.17
성적	상	4.08	1.00
	하	3.69	1.12
전체		3.88	1.08

<표 4>,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업시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교사들이 고무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은 학년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각은 2학년(M = 4.10)이 6학년(M = 3.68)보다 높았다($F(2, 155) = 7.493$, $p < .001$).

<표 6>과 <표 7>의 결과를 보면 교사와의 친밀감의 지각에 있어서는 학년별($p < .001$), 성적별($p < .01$)로 유의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 < .001$). 학년별로는 2, 4학년과 6학년간에 유의한 차가 있었다. 즉 2, 4학년이 6학년보다 교사와의 친밀감 지각 정도가 높았다. 교사에 대한 친밀감 지각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현저히 약해지며(M = 4.45 > 4.18 >3.03), 성적이 높은 학생보다(M = 4.08) 낮은 학생(M = 3.69)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타인 수행에 대한 지각과 도움요청

다른 학생이 학업상황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각할 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결과들은 다른 학생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각할 때(M = 3.16)보다 다른 학생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도움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M = 3.51)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6학년에서 더 많이 보고되었다(M = 2.95 대 3.67). 반면에 2학년과 4학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

<표 7> 학년, 성, 성적에 따른 교사에 대한 친밀감 지각의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SS	DF	MS	F
학년	36.668	2	18.334	30.673 ***
성	.963	1	.963	1.611
성적	4.246	1	4.246	7.103 **
학년 X 성	8.709	2	4.355	7.285 ***
학년 X 성적	.463	2	.231	.387
성 X 성적	2.40	1	2.40	.040
학년 X 성 X 성적	.527	2	.263	.441
Residual	92.649	155	.598	
전체	144.129	166	.868	

*** $p < .001$ ** $p < .01$

<표 8> 타인 수행 지각에 따른 도움요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 학년	타인 어려움 있을 때 M	타인 어려움 있을 때 SD	타인 어려움 없을 때 M	타인 어려움 없을 때 SD	t
2	3.47	1.10	3.42	.96	.299
4	3.38	1.10	3.11	1.03	1.371
6	3.67	.97	2.95	.87	4.248 ***
전체	3.51	1.06	3.16	.97	3.306 ***
F	1.076		3.594 *		
Scheffe 사후검증			2 > 6		

*** p < .001 * p < .05

<표 9> 도움요청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변인	R	R2	R2 변화량	Beta	F
교사와의 친밀감	.430	.186	.186	.31	17.51 ***
교사고무	.452	.205	.019	.19	19.37 ***
학년	.473	.224	.019	.11	5.04 *

*** p < .001 * p < .05

을 실시한 결과, 다른 학생들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각할 경우의 도움요청 가능성은 학년별로 유의한 차가 없었으나, 어려움이 없다고 지각할 경우에는 2학년(M = 3.42)보다 6학년(M = 2.95)이 도움요청 가능성을 낮게 보고했다. 타인 수행에 대한 지각과 학년, 성, 성적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어 보고하지 않았다.

끝으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도에 대한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사용된 예측변인은 학년, 성별, 성적, 도움요청에 대한 교사들의 고무, 교사와의 친밀감 지각, 타인 수행에 대한 지각 요인이었다. 예측된 변인 중에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는 의도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인은 교사와의 친밀감 지각으로 설명력은 18.6%였다. 두 번째 주요 설명 변인은 교사고무 변인으로 추가 설명력은 1.9%였다. 세 번째 주요 설명 변인인 학년은 추가적으로 1.9%의 설명력을 더해 주고 있다. 세 개의 변인 모두를 고려했을 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는 의도에 대한 설명력은 22.4%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교상황에서 학업과 관련하여 잠재적 도움제공자로서 교사들과 급우들에 대한 학생

들의 지각을 조사함으로써 도움요청에 대한 교실 변인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먼저 학생들은 교사보다 급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은 교사를 학습을 더 촉진시키는 존재로 보고했다. 수업시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학생들의 신념은 그들이 실제로 도움요청을 할 것이라고 보고하는 것 뿐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기를 좋아하는 것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문제해결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교사보다 급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은 점차로 효과적인 도움제공자와 효과적이지 못한 도움제공자를 구별하는 특성들을 알게된다. 비록 유치원 아동들이 개인적 요인들(예를 들어, 마음에 들고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도움제공자를 선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할지라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아카데믹한 것들(예를 들어, 도와줄 능력이 있다는 지각)을 고려해 도움제공자를 선택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 Newman과 Goldin(1990)의 연구 결과도 학생들은 도움제공자로서 급우보다 교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좀 더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경쟁이 조장되고 수업시간에 교사와 학생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교육적 풍토에 기인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우리 나라의 교직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이용숙(1992)은 교사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토의를 중시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단편적, 시험용, 정답형 지식을 일제식·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수업을 하거나 생활지도를 할 때 자신이 선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통제하며, 이러한 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해 학생들은 획일주의, 권위주의, 형식주의, 폭력에의 순응 등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고무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과 교사에 대한 친밀감 지각이 학년, 성별,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본 결과들은 수업시간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사들이 고무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과 친밀감 지각이 학년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상급학년으로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도움을 요청하게 하는 수업환경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학년과 4학년에서 교사와의 개인적 친밀감을 좀 더 높게 지각했다. 이것은 좀 더 나이든 학생들은 "좋은(good)" 도움 제공자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어린 학생들보다 훨씬 더 과제 특수적이라는 선행 발견과 일치한다(Nelson-Le Gall, 1984, Nelson-Le Gall & Glor-Scheib, 1985). 좀 더 나이든 학생들의 학문적인 성장에 있어서 교사와의 개인적 관계의 의미는 필요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실분위기 만큼 충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과 급우들이 그들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염려를 알아봤다. 학년 관련 차이점은 없었으며 단지 성적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도움을 요청할 때, 교사나 학생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더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도움요청 의도는 타인 수행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6학년의 경우에서 자신들의 학업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일한 학생이 아니라고 지각할 때 도움을 요청할 의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학년이 올라갈

수록 사회적 수용, 동료집단의 상태, 자아존중감의 보호에 대한 염려가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Tessler & Schwartz, 1972), 비교정보의 고무 및 억제의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은 놀랄만한 것이 아니다.

끝으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는 의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학년, 성별, 성적, 수업환경에 대한 지각, 교사와의 친밀감 지각, 타인수행에 대한 지각 요인을 고려해본 결과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교사와의 친밀감 지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도움제공자의 선호와 수업환경에 대한 지각이 도움요청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의 이해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도움요청의 결정인자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고 학생들과 교실맥락의 많은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모든 교실구조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학년관련 차이점들이 발견되었지만, 학년관련 차이점들의 원인은 좀 더 심오한 연구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실 특성들의 체계적인 변화를 고려해서 연구를 반복해보고 확장시키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요청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기초로 해서 많은 후속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이용숙(1992). 한국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구상 - 교육내용과 수업방법 편 -. 한국교육개발원.

Ames, R.(1983). Help-seeking and achievement orientation: Perspectives from attribution theory. In B.M. Depaulo, A.Nadler, and J.D. Fisher(Eds), *New directions in helping*(Vol. 2, pp. 165-186). New York: Academic Press.

Ames, R., & Lau, S.(1982).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help-seeking in academic setting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414-423.

Barnet, K., Darcie, G., Holland, C. J., & Kobasigawa, A.(1982). Children's cognitions about effective helping. *Developmental Psychology, 18,* 267-277.

Dillon, J. T.(1988). The remedial status of student questioning.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0,* 197-210.

Eccles, J., Midgley, C., & Adler, T. F.(1984). Grade-related changes in the school environment: Effects on achievement motivation. In J. G. Nicholls(Ed.),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The development of achievement motivation*(Vol. 3, pp. 283-331). Greenwich, CT: JAI.

Fraser, B. J.(1986). *Classroom environment. London,* England: Croom Helm.

Good, T.L., Slavings, R.L., Harel, K.H., Emerson, H.(1987). Student passivity: A study of question-asking in K-12 classrooms. *Sociology of Education, 60,* 181-189.

Karabenick, S.A., & Knapp, J.R.(1988). Help-seeking and need for academic assist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406-408.

Nelson-Le Gall, S.A.(1985). Help-seeking behavior in learning. *Review of research in education*(Vol. 12, pp. 55-90). Washington, DC: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lson-Le Gall, S.A., & Glor-Scheib, S.(1985). Help-seeking in elementary classrooms: An observational study.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0,* 58-71.

Nelson-Le Gall, S.A., & Gumerman, R.A.(1984). Children's perceptions of helpers and helper motiva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5,* 1-12.

Nelson-Le Gall, S.A., & Gumerman, R.A., & Scott-Jones, D.(1983). Instrumental help-seeking and everyday problem-solving: A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B. Newman, R.S.(1990). Children's help-seeking in the classroom: The role of motivational factors and attitud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71-80.

Newman, R.S.(1991). Goals and self-regulated learning: What motives children to seek academic help? In M.L. Maehr & P.R. Pintrich(Ed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Goals and self-regulatory Processes*(Vol. 7, pp. 152-183). Greenwich, CT: JAI.

Newman, R. S.(1994). Adaptive help-seeking: A strategy of self-regulated learning. In D. Schunk & B. Zimmerman(Eds.), *Self-regulation of learning and performances: Issues and educational applications*(pp. 283-301). Hillsdale, NJ:Erlbaum.

Newman, R.S., & Goldin, L.(1990). Children's reluctance to seek help with schoolwork.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92-100.

Pintrich, P.R., & De Groot, E.V.(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33-40.

Skinner, E. A., Wellborn, J. G., Connell, J. P.(1990). What it is takes to do well in school and whether I've got it: A process model of perceived control and children's engagement and achievement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22-32.

Slavin, R.(1983). *Cooperative learning.* New York: Longman.

Tessler, R.C., & Schwartz, S.H.(1972). Help-seeking,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An attributio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318-326.

Zimmerman, B. J.(1994). Dimensions of academic self-regulation: A conceptual framework for education. In D. Schunk & B. Zimmerman(Eds.), *Self-regulations of learning and performance: Issues and educational applications*(pp. 283-301). Hillsdale, NJ:Erlbaum.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1988). Construct validation of a strategy model of student self-regulat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284-290.